

본당 소식

♣ 오늘의 전례

- 오늘은 연중 제21주일입니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혜의 샘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베드로 사도의 겸손한 증언으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모든 이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시어, 나자렛 예수님을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알아 뵈고 살아 있는 돌이 되어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하느님을 찬양합시다.

♣ 2026년 가톨릭청년성서모임 - 유럽 13차 창세기 연수

- 일시 : 8월 28일(금)~8월 31일(월)
- 장소 : 독일 프랑크푸르트
- 참가자 : 김영수 빈첸시오, 안소현 아녜스, 안동진 안드레아, 장보인 비비아나
- 유럽 각국의 한인성당 청년들이 모여 성경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연수입니다. 참여하는 청년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73.00€ • 교무금 550.00€

전례 성가

입당 : 59 (주께선 나의 피난처)

봉헌 : 512 (주여 우리는 지금)

성체 :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502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파견 : 82 (주 찬미)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6년 8월 23일

(녹) 연중 제21주일

본기도

하느님, 신자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 주님, 당신 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1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22,19-23)

주님께서 궁궐의 시종장 세브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19 “나는 너를 네 자리에서 내쫓고, 너를 네 관직에서 끌어내리리라.

20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나는 힐키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야킴을 불러

21 그에게 너의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너의 띠를 매어 주며 그의 손에 너의 권력을 넘겨주리라.

그러면 그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되리라.

22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매어 주리니

그가 열면 달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23 나는 그를 말뚝처럼 단단한 곳에 박으리니
그는 자기 집안에 영광의 왕좌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1,33-36)
33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34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35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36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3-20)
13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14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15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16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18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20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살피 주시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며, 주님의 참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2.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이신 주님, 이 땅의 공직자들을 주님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자신의 공
적 신분과 직무를 올바로 깨닫고,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
서.

3.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억압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굽어살피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4. 절망에 빠져 힘겨워하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희망의 근원이신 주님, 이 시대 젊은이들이 짊어져야 하는 수많은 고통을 잘 아시오
니, 삶의 무게에 눌려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주님의 사랑에서 위로를 얻고 참된
빛을 발견하여, 새로운 길을 향하여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이 성찬례로 충만한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